

행복한 금요 편지

길을 묻는 그 대에게

전영돈

DM 청년아카데미 원장¹⁾

조지훈이 '목월에게' 라는 부제와 함께 완화삼(玩花衫)이라는 시를 보냈습니다.


인생의 물 길 굽이굽이 칠 백리 길의 먼 길이지만 인생 나그네 길을 재촉하며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진다며 내일이면 늦다고 재촉합니다. 비단 옷 소매에 꽃 잎 물들이며 삶의 사치에 빠지지 말고 술 익는 강마을에서 저녁 놀에 취해 있지 말며 시를 많이 쓰고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서로 정진하자며 넌지시 건네는 것입니다.

길을 묻는 그대여!

정 많아 주변 돌아보고 하고픈 일을 못 다한 한이 많겠지만 그것도 타고난 병이라 생각하고 현재 던져진 길을 오늘 게으름 피우면 내일 저 마을의 꽃을 못 본다는 심정으로 고요히 흔들리고 고민하면서 발길을 재촉해 봅니다.

박목월은 '나그네'를 통해 인생의 길을 말합니다. 인생의 긴 삼백리 길을 그것도 외줄기의 길을 외롭게 혼자 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선택된 길은 바꿀 수도 없는 외길입니다. 구름 가 듯 세월은 흘러가고 달이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나는 발전 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녁 놀처럼 벌겍게 취하는 술 익는 풍요와 흥을 만나기도 하면서 세월과 인생을 묵묵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전영돈 DM(Dream Making) 청년 아카데미 원장은 현재 (사)바른선거시민모임 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며 길은 연하여 있을 것인데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길은 꿈을 향해 있으니까요. 또 인생 길은 늘 처음 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새롭고 흥미롭습니다. 여행을 싫어하는 이는 드뭅니다. 여행은 왜 즐거운가 하면 새로운 것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자연 환경도 다르고 여행지의 사람들은 그 들의 문화에 따라 생각하는 차원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또는 남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합니다. 남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남과 경쟁하거나 부딪힐 일조차 없습니다.

새로움을 만나는 처음 가는 길은 두렵습니다. 길이 어디로 인도할 것 인가하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겹치고 혹은 돌아갈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연하여 있고 걸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늘 길이 있습니다. 세상사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헤쳐 나가려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길이 끊기면 어쩌랴? 백범 김구선생 일지에 '백척간두에서도 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하고 현애철수 장부아(懸崖撒手 丈夫兒)'라고 하였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진보적이고 발전적 생각으로 나아가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길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아름답고 황홀한 일입니다. 더구나 다음 사람들은 나를 칭송하며 내가 만든 길을 걸어 갈 것이니까요.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부제를 통해 길의 선택으로 다른 길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선택한 길에서 행복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남에게 길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걸어 갈 길 또 선택하고 걸어온 길은 모두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한 길입니다. 대낮 지붕 위에 올라간 닭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알게 하고 숲 속 호숫가에서 개구리가 물속에 뛰어드는 소리에 그동안 적막함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큰 소리가 고요를 알게 하는 것처럼 다른 길이 있음으로 내 길의 운명적 만남의 기쁨을 알게 합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랫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며 가수로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은 가수나 성악가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가졌다고 비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길은 죽음 이외에 정해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자라는 것도 넘치는 것도 없습니다. 걸으려는 자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고 인생의 길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배가 고픈 자는 진정한 의미의 음식 맛을 모르며 목마른 자는 물의 단 맛을 알지 못합니다. 갈구하지 말며 늘 길 위에 서서 앞을 보고 주변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며 천천히 걸읍시다. 급한 것도 없으니 뛰지 말고 천천히 갑시다.

머무르고 싶다면 머무르고 힘든 고개 길이면 쉬었다 갑시다. 소매에 꽃 물도 들이고 술 익는 마을마다 저녁 놀처럼 벌겍게 흥에 취하기도 하면서 구름에 달 가듯이 고요히 흔들리며 갑시다.

옛 말에 민가에 흉년이 들면 산에 도토리가 풍년이라 했다는데…….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세요.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운명처럼 다가오는 어떤 일이든 마음껏,

하고 싶은 일처럼 하세요.

길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그것들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